



A BRIDGE TOO FAR

SCRIPT BOOK

LEE YOONGEON

그: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살아왔잖아, 그치? 근데 이 30년은, 내가 생각하는 30년은 그냥 기본 다지는 30년이야. 앞으로 30년을 위해서. 무슨 소린 줄 아냐?

그녀: 왜 그런 말 많이 하자나.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진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

그: 이 나머지 삼십(년) 동안은 기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삼십(년)을 찾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이해했냐. 뭔지?

그녀: 나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 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

그: 그게 뭘 질 모르겠어. 아직. 내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근데 옛날보단 더 많이 알아. 옛날엔 내가 뭐가 좋았는지 뭐가 싫었는지. 근데 지금은 '아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다.' 경험을 했으니까. 옛날에는 안했던 경험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녀: 그러한 작업을 하면서 사는 게 가능한 것인지? 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나는 사람이 한 명 있자나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자나. 나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여준다고도 생각해. 이렇게.

그녀: 요 며칠 든 생각은 내가 자꾸 과거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과거를 버리지 못한다, 미래로 나아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의 방향성이 과거를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긍정적으로 와 닿지가 않고.

그: 내 주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가느냐가 그 사람들이 나를 말해준다고. 이게 내가 늘 생각하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그녀: 처음에 그 경계심이 좀 커. 그래서 그게 크고. 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문이 너무 무겁고, 두껍고, 커서 열기까지 되게 힘든 거야. 일단 그렇게 한번 열리면 다시 닫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 그래서 좀... 깊게 사귀고 깊게 안사귀고. 꽤 은근히 넓게 퍼져서 사귀긴 하지만, 그 깊이 조절을 하지 사람이 누구나. 그런데 그 깊이 조절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가슴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녀: 나는 내가 나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를 내 나름의 지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근데 나는 운동을, 내가 어렸을 때는 되게 말랐었어. 그치? 내가 어렸을 때는 너무 말라가지고.

종업원: 과테말라구요.

그: 그래서 처음에는 마른 몸을 극복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운동을 시작한 거지. 조금이라도 남자다워지자.

그녀: 어느 순간부터 그 영화나 음악에 할애했던 시간을 다 책으로... 들여오게 된 거 같아. 동기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읽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

그: 좀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은 이게. 사람들은 변화를 모르는데 나만 느끼는 거야. 내가 미친놈처럼 막 와씨. ‘가슴이 좀 줄었나? 몸이 좀 줄었나? 좀 너무 작아졌나?’. 그럼 또 안 작아졌지만 미친놈처럼 ‘아! 작아졌어. 그러니깐 운동가야 돼’ 해서 하는 거고, 몸도 안 빠근해. 운동 안 해도 근데 내 느낌이 빠근하니깐 내가 빠근하다고 느끼고 막 운동가는 거고

그녀: 따로 운동을 하는 건 없는데 걷는 걸 워낙 좋아해. 좀 많이 걷는 편이긴 해. 그 외에 딱히 특별히 ‘운동을 해야지’해서 하는 건 없어.

그: 근데…자신감일 수도 있어. 이걸 좀 센 애긴데…. 여자를 만나거나 이성을 만날 때 운동을 하고 나가잖아? 그럼 내 자신감이 진짜, 진짜 커져. 아… 이걸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운동으로서는 아드레날린이 올라간 걸 수도 있고, 내 기분이 업 된 걸 수도 있고, 내 모든 컨디션, 내 정신적, 신체적, 마음 뭐 다.

그녀: 뛰는 거. 뭘 때 처음에 뛰어야겠다고 해서 뛰게 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뛰고 있더라고. (웃음) 나도 모르게 뭘가 막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워질 때, 걷는 걸 좋아하니까. 원래 산책을 잘하는 편이거든? 산책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뛰고 있더라고. 그냥 한참 이렇게 뛰고 나서 갑자기 뛰면, 몸에 열이 확 오르면서 헉헉되게 되잖아. 근데 그 열이 갑자기 확 오르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되게 시원하고. 특히 겨울에.

그: 음악. 그거지. 우리 스무 살의 초반 친구들이나 이십대 초반 친구들이 그 때 막 한창 유튜브로 소녀시대 뭐 또 누구 있어? 원더걸스 이런 걸 찾을 때, 나는 에미넴 노래를 찾았고. 에미넴 노래, 릴 웨인, 티아이, 루페, 제이지, 칸예나 이런 걸 들은 게…나한테 그 음악은, 힙합은… 정신적인 게 커.

그녀: 뭐 장르로 분류하자면 가리지 않아. 요즘 자주 듣고 있는 음악은… 셀레논.

그: 근데 큰 일 있거나 시험보기 전이나 할 때, 애들 뭐 짜투리 공부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음악 듣고 있어. 그게 내 마음 정리하는 거고, 릴렉싱해지는 거고, 자신감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꼭 저기… 음악을 듣고 자신감을 키우는 거야. 음악으로써. ‘한다. 한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그런 거지…그 뭐라 그러지? 쉐도우 복싱? 쉐도우 복싱하는 것처럼 나도 음악을 들어. 힙합 음악.

그녀: 초등학교 때 패닉 처음 나왔을 때, 그 때 막 붐이 HOT… 캔디 맞아? 그런 거 유행하고 애들 막 파란색 방울 이런 거 달았을 때, 나 혼자 맨날 ‘집에 오는 길에’ 이런 거 맨날 들어가지고. 뭘가 대조되어서…. 내가 좋은 걸, 공감을 친구들이랑 같이 못해서 되게 아쉽고 속상했거든. 우리 집이 진짜 거기서 멀었어.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듣는데…. 그걸 같이 나눠서 그거에 빠져서 얘기하면 재밌자나. 근데 그럴 수가 없어서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애들 어렸을 때부터 GOD, 신화, HOT, 잭키 할 때, 나는 그때도 에미넴을 들었어. 그게 최고의 공연이었고 최고의…. 그 다음부턴 릴 웨인도 듣고, 티아이도 듣고, 점점 내 스펙트럼이 커졌지 뭐. 음악에 대한. 되게 좋아.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진짜 좋아하는 걸 갖고 있다는 게.

그녀: 근데 전반적으로 학창시절 내내 꾸준하게 좋아했던 건 영국 팝? 근데 영국 밴드인지 모르고 처음에는 그냥 막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부분이 영국 밴드여서, 어. 그리고 또 아, 그래. 영화 한창 좋아할 때는 OST 위주로 듣고.

그: 취미가 좋은 게 있자나. 막 지루한 삶에 한방이 되어 주는 거지.

그녀: (컵받침에 그림 그린다)

그: 어 내가 1분이 얼마나 긴지는, 국수 끓일 때 알 수 있어. 나는 국수를 딱 끓여 근데 국수 보면 면에 '몇 분 하세요.' 있자나. 나는 이것 진짜 정확히 웬만하면 지킬라 그래. 근데 4분을 끓여야 되. 소면은. 너 본적 없지? 라면도 막 몇 초 쓰여 있자나. 근데 소면은 4분을 끓이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보고 한참을 끓였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시계를 봤어. 근데 2분이 지난거야. 그래서 내가 와! 1분이란 시간이 이렇게 긴 가. 나한테? 인생에서? 나는 지금 백년을 살 텐데 1분이란 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인가. 그걸 난 소면을 끓이면서 깨우쳤다니깐. 내 삶에서. 그럴 수 있다니깐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말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일상사를 말하고, 속 좁은 사람들은 사람을 말한다.

그녀: 여행할 장소에 대한 조언은 어디에나 널려있지만, 우리가 가야하는 이유와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

그: 물론 비행기 타면 가능하죠. 근데 친구 사귀기에는 열차만한 게 없어요. 매일같이 사람들이랑 밥 먹고, 차 마시고, 삼일 내내 밥 먹고, 차 마시면 어쩔 수 없이 친해지는 거죠. 인도열차 같은 경우에는 칸과 칸이 막혀있으니까. 이동도 안 되니깐 더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녀: 모든 운송 수단가운데 생각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마 기차일거야. 기차를 타고 몇 시간 동안 꿈을 꾸다보면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단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만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집은 아니잖아.

그: 원체 게을러 게을러서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데 가는 게 분명히 좋지. 새로운 곳도 보고 신기한 것도 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녀: 정서의 환기가 필요할 때. 오히려 쉬고 싶다거나, 뭔가 익사이팅 하고 싶다거나 이런 것도 물론 요소가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지금 계속 반복되던 어떤 무언가로부터의 환기?

그: 사람들 막 한 달 배낭여행하면 막 여러 나라 막 돌아나. 여기 삼일, 저기 삼일, 여기 삼일. 그런 거 말고 그냥 한 지역에서 있고, 그 지역에서만 그냥 한 달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 가게 아줌마랑도 얘기하고, 아니면 뭐 레스토랑 아줌마랑도 얘기하고... 다 아줌마네? 아저씨들이랑도 얘기하고 그 동네 친구들이랑도 얘기하고. 그게 더 내가 좋아하는 여행이지. 그리고 그게 더 편해. 내 숙소를 한 달 동안 정해놓고, 거기서 내 집처럼 생각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게 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더 편하고, 그게 더 내가 생각하는 여행이지 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곳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보다도 나는 시간적인 내 여유라고 생각...내 마음적인 여유

그녀: 여행계획은 미리 많이 안 짜. 안 짜고, 막연하게 가고 싶다 이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 확 결정해서 우선 가버리는 편이야. 미리 일정... 어디가야겠다는 스케줄을 잡지 않아. 왜냐하면 먼저 말했듯이 일상화 되는 걸 좋아해서 거기 가서 하루 계획 짜듯이 하면서 근처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 만나고, 많이 걷고...

그: 그 마음적인 여유가 시간에서 온다고도 생각해. 그래서 시간이 여유로운 여행. 마음이 여유로운 여행. 그래서 한 지역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랑 보고 심적으로 안정 찾고. 새로운 생활을 해보는 거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여행이지, 다른 사람처럼 배낭 여행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여행은 아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녀: 나는 제일 좋았던 거는 파리. 파리가 너무 좋았어. 파리 여행을 갔을 때. 나는 여행을 혼자 하는 편이고... 한 번에 한 숙소, 한 지역에서 오래 있는 편이거든? 그래서 파리 갔을 때도 파리에 그냥 한 작은 호텔에서 두 달 혼자 지냈는데,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는 그 공간 걷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어느 정도 나의 일상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걷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장도 보고. 주변에 사람들도 만나고

그: 음...프랑스 가고 싶어. 다른 데도 뭐...아시아도 분명 좋은데도 많고, 다른 데도 많이 봤지만. 가장 내가 여유롭게 있어도, 내 여유조차도 멋이 될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라고 생각해. 가장 여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녀: 유명한데 다니는 거 위주로 좀 한 번에 배낭여행처럼 한 번에 여러 군데 다니거나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 근데 그런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했을 때 가장 일상화됐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그 파리였어. 아무래도 도시가 좀 작은 편이고, 그리고 파리가 가지고 있는 유명한 것들. 뭐 에펠탑, 루브르, 몽마르뜨 이런 것들이 여행지로선 거대하게 이미지화 되어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실제로 거기서 봤을 때 훨씬 작고 소소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

그: 한국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데는 잠깐 갔었는데 음...여수.

그녀: 바다...있는데 면 뭐 아무데나 상관없어. 근데 다만, 너무 도심은 싫어.

그: 여수밤바다 노래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수에서 내가 '항일암'이란 데를 혼자 배낭여행갈 때, 국내 배낭여행 한...보름 했었나? 그때 내가 여수 항일암을 잠깐 올라갔었는데 혼자 거기서 나는 낮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만나 어떤 한 중년 부부가 이거를 '밤에 새벽 때 보면 한국에서 뽑히는 절경이다.' 그 얘기 해가지고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항일암 같이 가고 싶어. 여수에 있는 항일암에서 같이 해 뜨는 거 보고 싶어. 해 뜨는 걸 본다는 걸 나는 큰 의미를 둔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걸 보고 싶어 같이. 항일암에서 해 뜨는 걸. 그리고 뭐 바다도 좋고.

그녀: 근데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데는 '거제도'. 친구 외할머니 댁이 거제도에 있는데 정말 완전 시골이래. 화장실도 그냥 잘 안 되어있고. 그냥 통 하나 있고 이런 덴데. 바다 가까이에 있고.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낚시도 할 수 있고. 거기 가자마자 하고 있거든 친구들 이랑.

그: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노래 부르는 중.

그: 나는 그냥 별로 안 좋아해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는 데 타고 그냥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그녀: 서로 옆에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런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답답하고 이상하고 싫어서, 마치 거기 앉아있으면 내가 시체가 된 거 같고. 시체들이랑 같이 이동하는 느낌이 들어.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나는 지하철이 싫어.

그: 운전도 별로 안 좋아해 사실. 운전하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뭐 멋진 남자들 얘기하자나. 막 운전 멋있게 하고, 즐기고. 근데 나는 운전하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운전하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데, 자전거는 그래도 좀 좋고.

그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자전거 타기에는 서울이 좋은 도시 같지 않아. 한강은 너무 좋은데 그걸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도시의 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자전거가.

그: 그냥 어쨌든 나는... 순간이동 했으면 좋겠어. 탈거라고 얘기해서, 순간이동 얘기해서 이상한데 그냥 훅 갔으면 좋겠어. 뭐 가는 시간도 별로 안 좋아. 가는 시간 자체가 즐거울 때도 있어. 근데... 뭐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

그녀: 나는 기차가 제일 좋고. 근데 기차로 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으니깐, 비행기. 근데 난 비행기도 싫어. 비행기 뭐 내가 아주 좋은 클래스를 타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뭐 별로... 기차가 제일 좋아.

그: 아 근데 그때 그건 하고 싶어. 기차타고 가는 건. 멀리. 여자친구랑 나랑 둘이 기차타고 밤바다 보러가는 거. 기차 안에서 밤에 밤 풍경 보이는 거 좋아. 그리고 비 많이 오는 거 있자나. 기차 내가 타고 있는 데,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 무슨 말인지 알아? 막 폭우, 폭우. 폭우까진 좀 그래도 막 장대비 쏟아지면 보고 있는 거 좋아. 내가 같이. 비보고 있고 싶어.

그녀: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힘들수록 더 걷고 싶어 해. 근데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면 걷는 게 힘들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다거나. 그거 외에는 (걷는 게) 좋아.

그: 미안해요. 조바심 내면서 기다리니다 보니깐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나는 그냥 걱정했다는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하여튼 이 바보스위치. 이 바보 스위치.

그녀: 아, 왜 그래요. 하지 말아요.

그: 나는 집이 제일 좋아. 제일 편한 거? 밖에 있다가도 집에 가면 편하고 집에 있어도 편하고 계속 편해. 집에 있으면 무조건 편해. 집에 있으면 심심하지도 않고. 난 집에 있는 게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정말 너무 너무 좋아. 집만큼 좋은 게 없는 거 같애. 집에 누구랑 있던 혼자 있던 상관없이. 가족이랑 있어도 좋고, 친구랑 있어도 좋고. 집이 최곤 거 같애.

그녀: 가족과 함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이라고 한다면, 첫째로 나는 불편해. 왜냐면 책임감이 따라서.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단 감정이 먼저 있고. 공간으로서의 집은 내가 지향하는 건, 반대로 내가 편할 수 있는 공간을 집이라고 생각해. 그런 의미에서 나는 혼자...오롯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그런 의미에서 내가 편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로 하면은 또 혼자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은 내가 심리적으로 편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이 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집은 불편한데, 그 불편함이 책임감에서 오는 불편함으로 내가 오히려 더 긴장해서 있게 되는 집...이 가족과 함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 좀 분리 되서 나한테는 있는 것 같아.

그: 집보다 좋은 게 있나, 세상에? 그 공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이라는 자체가 좋은 거지. 그 공간적으로 어쨌다를 떠나서... 그 집 자체. 느낌 있자나 집이라는 느낌. 집이 흠이자나. 근데 그 집이 뭐라 그럴까? 공간. 아 집이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공간이 아니라 그 느낌. 그 공간이 아니야. 내가 어디 속해있다는 거지. 내가 속하는 곳. 내가 속하는 곳이라는 게 집 아니야? 내가 속한다? 100퍼센트 속하는 곳. 뭐 직장은 한 80퍼센트 속할 수도 있고, 자기 느낌에 따라 다른데, 집은 100퍼센트 내가 속하는 곳이구나. 100퍼센트

그녀: 이별이랑 같은데, 그 공간...에 대한 이별이자 그 공간이 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그에 따른 내 정서들과의 이별이 이사인 거 같아.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하는 게 이사인 거 같아

그: 설렘과 힘들? 하는 거는 힘든데...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설렘이 더 큰 거 같애. 새로운 공간으로 가니깐 좋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다시 집을 꾸밀 수 있자나. 인테리어를 할 수 있자나.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애. 근데 다시 해도 사실은 그 전에 했던 거에서 크게 변하진 않는 데, 그래도 처음에 와 이제 다시 집 꾸민다!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애. 재밌는 것 같애.

그녀: 내가 지금 집 말고 이 전에 살았던 집에 한 3년 넘게 살았었는데, 거기 이제 이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야. 뭐냐면 나는 짐을 좀 내가 혼자 좀 시간을 두고 정리하는 편인데, 이삿짐을. 그 때 이사할 때도 한 한달 정도 걸렸거든. 그냥 조금 조금씩 챙기는 거야. 그러다가 그러던 중에, 새벽에 내 방이 이렇게 창이 큰 창이 앞에 있고 그 창을 일어나면 이렇게 볼 수 있게 침대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침대에 이렇게 쭉그리고 앉아가지고 창문을 보고 있다가… 새벽이 이제 어두웠다가, 새벽으로 넘어가는 아침으로 넘어가는 중에, 창이 점점 밝아지는 데 좀 완전히 파란 색이 되기 전, 어두운 파란색이 되면서 방에 불은 꺼져 있고, 내가 창문에 막 이렇게 사물들을 매달아 놔었는데, 창이 밝아지니깐 그 사물이 어두워지고… 그 부분은 까매지고 밝아지는 창문만 이렇게 면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내 창문의 면을 처음으로 마주한 느낌이 드는 순간이었어. 그전에는 창의 형태나 기능으로서만 내 방 창문을 바라보다가 그때 처음으로 아 이 창문이 가진 면을 인식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 그 사물의 아웃라인이랑 같이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면으로서 인식된 순간이라 되게 생경하면서도,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 나 이사 별로 안 해봤는데. 이사 그렇게 안했는데 그때 큰 사고를 겪으면서 1층에서 3층으로 이사한적 있어. 같은 건물.

그: 와. 내 잘못이 아니라니깐. 그게 화장실 변기가 망가졌는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어. 100퍼센트 내 잘못이 아니야. 이미 검증된 거야. 그래서 내가 1층에서 3층으로 이사 갈 수 있었어.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거냐면, 그 건물 아저씨가 잘못된 거였어. 그 청소를 안한거야. 그 아저씨가 정화조 청소를. 근데 그 아저씨가 계속 나에게… 안 좋은 눈빛을 쬐지. ‘너가 망가뜨린 거다. 너가 망가뜨린 거다.’ 하지만 그 아저씨가 입으로는 “학생. 괜찮아요?” 했지만, 그래서 계속 ‘너가 망가뜨린 거다’라는 이미지를 쬐지만, 확실히 짚고 갈 게 결론이 밝혀졌어. ‘내가 아니다. 내가 망가뜨린 거. 나는 상당히 깨끗이 쓰는 편이다. 모든 물건을.’ 근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정화조가 망가진 거지. 그래서 그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나한테 ‘이 건물에서 옮기고 싶은 층으로 옮겨주겠다. 빈방 중에’. 혜택을 준거지 혜택을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 그럼 최고층으로 가겠다.’ 역시 집은 최고층이야. 그래서 3층으로 옮겼지. 근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 아 내가 이걸 이사하는 게 상당히 힘들 거란 생각을. 그래서 내가 밤에 ‘아 나는 힘이 세니까 혼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내가 1층부터 3층까지 혼자 이사를 했지. 와 근데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친구들이 아무도 안도와주더라고. 와!

그녀: 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내가 작업하는 공간. 그러니깐 책상이 되는데, 주로 책상에서 공부하고 책상에서 작업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공간이 내가 작업하는 공간. 책상. 그래서 창문을 바라보고 책을 보거나 뭘 해도 그런 걸 좋아해서 일부러 위치를 정할 때, 창문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책상을 제일 먼저 정해. 책상을 놓을 공간을 제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다른 공간을 정하는 거 같애.

그: 침대 위. 침대 위. 제일 좋아. 잠도 자고. 근데 침대 위에서 뭐 먹는 거 싫어하는데, 그냥 침대 위에서 있는 게 좋아. 침대 위에서 그냥 텅구는 거. 어, 침대 위에서 텅구는 거. 혼자가 됐든. 나중에 부인이 됐든. 침대 위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닌가? 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깐. 잠이, 잠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잠자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 내가 진짜 자는 거. 그래서 자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잠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잠자는 게 편하니까 침대 위. 침대 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먹는 건 어디서든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잠은 나는 내 침대에서 잔다는 주의기 때문에, 내 무조건 집에서 자야 돼. 뭐 예외도 있지만, 여행 갔을 때. 그래도 집에서 자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 침대는... 삶이야 삶. 침대에서 모든 게 일어나. 진화의 끝이지. 침대에서 진화 일어나지. 침대에서 모든 게 일어난다니깐? 모든 게임의 끝은 침대에 있어. 하루의 끝도 침대에 있고. 침대야. 침대 좋은 거 쓸 거야. 제일 좋은 거.

그녀: 내가 오래전부터 상상하던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깐 내가 미래에 살 집으로. 음... 넓지 않더라도 우선 나는 천장이 좀 높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집 중앙에 조그만 정원이 있으면 좋겠어. 진짜 그냥 한 요기 4칸 정도라도 좋으니까, 조그만 정원이 있고 음... 집 가운데. 그리고 3층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되게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쓰고 싶거든. 오래된 옛날 주택을 개조해서... 3층 정도 되면, 그 1,2,3층을 관통하는 작은 정원이 있고 그걸 둘러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

그: 개인 주택도 살아봤고 아파트에서도 살아봤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에선 아파트가 나한테는 더 맞는 거 같애. 나는 간소화된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딱 필요한 거만 갖추어진 형태자나. 아파트란 것이.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형태로만 갖추어진 형태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가 더 좋고. 근데 이 공간만큼은 가족들한테 바치고 싶기 때문에 가족이 생긴다면. 그래서 가족들한테 물어볼 거 같애. 결혼하고 나서. 지금은 아파트가 더 좋고.

그녀: 일층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건 간에, 벽을 전부 책장으로 만들어서 책을 다 꽂아 놓고. 지인들이 편하게 와서, 읽고 싶은 책을 읽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층이나 삼층은 뭐... 내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남편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놓고, 삼층은 내가 쓰는 공간으로. 그래서 층을 막 넓은 집이 아니라, 거의 한 층이 뭐 분리형 원룸 정도의 크기? 여서, 방의 개념이 층의 개념이 되는 거지. 응. 그 정도의 공간?

그: 최 간소화. 심플한 거. 내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가구, 최소한의 생활용품, 최소한의 물건 배치. 그래서 최소화 된... 어, 심플함. 심플하게 꾸미고 싶어.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를 안 차지하고 심플하게, 최소한의, 내가 필요한 물건들만. 내가 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주체 안 되고. 다른 물건들이 주체 안 되고. 나, 가족이 주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최소한의 물건.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최소한, 심플?

그녀: 아 어릴 적 꿈에 대해서 얘길 하자면, 나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 과일가게 주인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과일가게를 지나갈 때 어..앞에 맛있는 과일을 많이 쌓아놓고 그 앞에 앉아있는 주인을 보면... 되게 부러워가지고 그게 되게 멋있어 보여서 과일가게 주인이 되고 싶었어.

그: 바나나가 비쌌어. 시골에서는. 근데 강원도에서는 바나나가 비싸서. 바나나를 자주...막한 개씩 팔았어. 한 개를 세 개 묶어서 5000원, 6000원씩. 근데 나는 집에 막내아들이고 외동아들이다 보니깐, 할아버지가 계속 바나나를 많이 사주셨어. 동네에서 유일하게. 늘 들고 다녔어 바나나를. 그래서 생각했어. 어린 마음에 생각한 게 아...원숭이가 되면 바나나를 맨날 먹겠구나. 그래서 바나나가 너무 좋으니깐 그래서 '나는 커서 꼭 원숭이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원숭이가 너무 되고 싶었어. 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 순수한 마음에. 나는 커서 원숭이가 되어야지 하고. 그 시절 때 또, 드래곤볼도 유행했고 손오공도 유행하던 시절이라서 내가 또 손오공 시대라서. 아 손오공도 원숭이구나해서 나는 꼭 손오공같은 원숭이가 되서 바나나를 많이 먹어야지가 내 꿈이었어.

그녀: 진짜 과일가게 주인 꿈은 정말 어릴 때였고. 어느 순간부터 그 주인이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자영업자다.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고 나서부터는 꿈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어릴 때 꿈 복숭아 꿈을 꿀 때, 그 때 꿈 얘기지.

그: 아...이게 되게 창피한 건데. 초등학교 때에...저학년 때 같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들이 학교에서 장래희망 쓰기하자나 꿈 쓰기. 그럼 친구들이 '저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저는 훌륭한 의사선생님,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했는데 나 혼자 거기다가 '원. 송. 이' 라고 쓴 거지. 아! 선생님이 얼마나 보고 충격을 드셨던지. 아 진짜 충격을 너무 크게 드셨다고. 내가 저능아인 줄 알고. 나는 내가 꿈 많던 어린아이였지, 저능아는 아니었고. 그냥 되게 꿈이 많았어. 꿈이란 게 많았던 게 꿈 종류가 많았다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컸어. '아 원숭이가 되어야겠다.', '세계 최고의 원숭이가 되서 바나나를 다 먹어야겠다.' 그 생각이 내가 가진 거였어. 초등학교 때 내 꿈은 원숭이였던 거 같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 다음에는 뭐 경찰관이나. 나이 들고, 이제 내가 원숭이가 못될 거라는 그 좌절감을 맛본 이후로 이제 내가 뭐 경찰관이 되고 싶었던가 뭐. 커서 뭐 그런 일... 선생님, 경찰관 이런 꿈을 꿨지만. 그거를 내가 원숭이가 못 된다는 걸 알기 전까지도 나는 원숭이가 되고 싶었었어.

그녀: 내가 말랑말랑한 복숭아를 엄청 좋아하는 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머니께 복숭아를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내일 사줄게." 이라고 말았어. 내가 그 과일 사달라는 얘기를 나는 되게 어렵게 말했는데 그게 좌절된 거지. 너무 슬퍼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내가 말랑말랑한 복숭아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베어 먹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맛이 있는 거지. 그래 가지고 너무 신이 나서 나를 계속 먹었는데, 막 다시... 다시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정말 실컷 계속 먹다가 깬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신이 나서 어머니께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복숭아가 됐었다, 그래서 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실컷 먹었다 그랬더니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과일을 사 주겠다 해서 바로 과일을 사서 실컷 먹은 적이 있었지.

그: 내 해몽(태몽) 내 꿈 중에 해몽이. 막 그런 거 있자나. 자기 해몽은 용이 백 마리가 승천했다든지. 호랑이가 나왔다든지. 그래서 나도 내 꿈이... 태몽이 그럴 거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거든? 한 번도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없고. 근데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기를, 과일이래. 남자치고 과일 나오는 애가 흔치 않은데, 과일이 이따 만한 큰 과일을 어머니가 딱 하나를 따고 날 낳았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이만한 과일이면 뭐 산 만해? 아님 집 만한 과일을 딴 거야? 그랬더니 그만한 것도 아니라 그냥 요만한 과일이래, 엄마가. 실제 크기보다 살짝 큰 과일. 고거 하나를 딱 따고 나를 낳데. 그래서 내가 아... 내 꿈에 내가 뭔가 되게 큰 사람이 될 사람은 아니구나. 꿈으로서는.

그녀: 그래서 고백하자면 그 뒤로 다른 과일이 먹고 싶을 때, 꿈을 안 꿨는데 꿨다고 거짓말하고 먹은 적도 있었어.

그: 어렸을 때 내가 원숭이가 되고 싶다고 그랬을 때는 진짜...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 때만큼은 상당히 진지했고, 나한테는. 이를 수만 있을 거 같은, 꼭 이를 거 같다는 생각으로 가진 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다는 거고. 그거를 한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는 내가 '참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시절이니깐.

그녀: 그러니까 어릴 적 꿈이었던 과일장수는 직업이 꿈이 아니라 그냥 과일... 내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다 소유한 그 모습...이 부럽고 그게 부러운 거고, 그런 상태를 꿈꾼 거지. 이쁜 과일들이 다 내거인 상태에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거지,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꿈이 아니란 말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그 과일장수를 직업의 측면으로 보게 되어 버렸으니깐.

그: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는 데. 그래도 좀 조금씩 타협을 해나가면서. 나쁘다곤 생각 안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내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타협해가는 것 또한 인생이라 생각하고. 차이는 그거.

그녀: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과일가게 주인이 되면 오히려 과일을 실컷 못먹을수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지.

그: 내가 가장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순간들은 꿈만을 쫓다가, 현실에 있는 것에서의 행복을 놓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 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또한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거만큼 현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많이 충실하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그녀: 내 공간이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그게 내 꿈인 거 같애.

그: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독수리나 매? 그냥 휘이- 휘이-. 내가 뭐 잘 모르지만 동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나 휘이- 휘이- 날아다니다가, 배고프면 쓰윽 내려와서 뭐 하나 잡아다가 먹고. 또 할 일 없이 하늘이나 휘이- 휘이 날아다니면서, 사람들 구경하면서 재네 뭐하나 쳐다보고. 잘 사네? 쳐다보고. 그게 나니깐. 내 성격이니깐. 그냥 사람들 뭐하나 휘이-휘이 쳐다보고. 해야 될 거 있을 때, 배고플 때, 밥 먹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그게 독수리 같애. 그래서 독수리, 매.

그녀: 예전에 동물점 이런 거 유행한적 있었어. 닦았다고 생각한다고보다는 그 동물점에 나왔던 게, 그렇게 놓고 보고 나니깐 닦은 거 같기도 하고 한 게 있거든. 근데 그 동물점이 뭐 이렇게 생년월일, 시 쓰면은 나오는 거야. 뭐 너는 무슨 동물. 성향이 어떠한. 거기서 난 코알라가 나왔어. 코알라가 나오면서 설명이,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풀 좋아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같이 나왔었는데. 그런 거 보니깐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했지.

그: 지금 친구들이랑 함께 공원에 나와서 운동을 한다든지. 가족들끼리 어디 자연으로 가고, 놀러가고. 그런 건강한 즐거움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애. 돈이 많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 모든 돈, 권력 보다 그러한 건강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 명예, 지위 위에는 그 즐거움, 건강한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걸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거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그 정점에 다가가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건강한 즐거움을 위해서.

그녀: 생각할 수 있는 거. 선택 음...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고, 판단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게 가치가 있는 거 같애. 그런 게 전부 박탈되는 건 가치가 없고, 살기 어려워지는 거 같아.

그: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은, 내가 지향하는 삶이기도 하고는... 내 자신이 우선 행복한 삶인 거 같아.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우선 내 자신이 가장 행복한 거. 뭐... 내 가족이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거고, 내 친구들이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우선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녀: 좀 전에 얘기했던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해.

그: 내 20대 후반을 남기는 거?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내가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니면 내 부인이 생겼을 때. 꼭 보여주고 싶어. 내가 이때 이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내 모습이 이랬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내 부인, 아들 아니면은 20년 후 30년 후의 나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그녀: 내가 질문을 듣고 바로 그 때 들었을 때 생각난 것들을 이야기한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봤을 때 사실 내가 말한 거지만, 기억하고 있지 못한 말들이 있을 거 아냐? 그거를 다시 보게 되면, 그것 자체로 내가 말한 건데도 불구하고 기억 못했던 걸 보고 듣게 되기 때문에 신기하고 재밌을 거 같애. 내 생각을 조금… 어… 내가 꿈을 꿨던 걸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처음에는 이상하겠지 조금. 어색하고. 근데 재밌을 거 같애. 즐거울 거 같애. 내가 지금 이거를 처음에 찍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찍으면서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즐거웠던 순간도 생각날 거고. 재밌었던 순간, 아니면 힘들었던 순간. 같이 찍는 과정에서의 순간들 모두모두 생각나면서, 즐거울 거 같고 재밌을 거 같애. 그 시간이 생각나는 순간만큼은 재밌을 거 같애. 처음엔 분명 어색하겠지만. 재밌을 거 같애.

그: 유광욱
그녀: 김지영

A BRIDGE TOO FAR

SCRIPT BOOK

초판발행 2013년 06월 11일

©이윤건 2013